

# 자연 휴양림 가족단위 관광객에 인기

# 나주 혁신도시 '스마트 그리드' 메카로

〈효율적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 전남 11개소 올 24만5000여명 다녀가 체험시설 등 갖추고 프로그램도 다채

화산 백야산·안양산 휴양림 등 전남지역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현재 도내에는 지난 5월 개장한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11개소의 휴양림이 운영 중인데, 6월말 현재 24만5000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52만3000여명이 이 지역 자연휴양림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44만명)보다 19%가 늘어난 것이다. 또 올 들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6월말 현재)에 비해 4만7000명이 증가하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자연휴양림의 등산로, 산책로 등에는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풍부해 산책목을 즐기는 휴양객에게 인기가 많고,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

는 물놀이장은 여름철 가족단위 피서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취사가 가능하고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숲 속의 집'과 단체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산림휴양관, 캠핑·야영장 및 체험시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휴가철에도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 이미 올 여름 휴가철 예약은 거의 완료된 상태다.

휴양림별로 연중 즐길 수 있는 숲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건강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성공 요인이다.

여수 봉황산은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편백, 후박, 고로쇠 등을 심고 광양 백운산은 동백, 가시나무, 마가목 등 부해 산책목을 즐기는 휴양객에게 인기가 많고,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가족 관광객들.

고,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과 숲 속의 집을 보수했다.

전남도 박화식 산림산업과장은 "자연휴양림의 풍부한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주는 상쾌함과 바람은 더운 여름날 가족단위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발전력 박용희 연구위원

## 에너지 공급 최적화 제안

한전그룹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 공급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산업 생태계를 전남에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전남발전연구원 박용희 연구위원은 10일 '스마트 그리드 전·후방 산업과 전남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간된 정책보고서에서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전·후방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회사의 통합

제어센터와 발전소·송전탑·전주·가전제품 등에 설치된 센서가 쌍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최적의 시간에 전력을 주고받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전력가격 인상, 전력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가 전력수급 대안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갈 두 가지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력계통은 복잡하고 불안해지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진보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두 분야의

관계는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박 위원은 "미국 내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은 600개 이상이며, 중소 규모와 대기업 수가 많은 성숙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스마트그리드 산업구조는 수도권에 편중(80.5%)돼 있으며 정책수요가 많은 지능형소비자(42.4%) 분야와 지능형 운송(29.3%) 분야에 집중돼 있는 초기 산업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이 스마트 그리드 전·후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스마트그리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전 이전과 동시에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치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담양읍 강정리에서 고품질 멜론생산을 위한 농가 실증시험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는 멜론연구회 회원과 담양 멜론재배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담양군 제공>

## 담양 멜론 평가회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담양읍 강정리에서 고품질 멜론생산을 위한 농가 실증시험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에는 멜론연구회 회원과 담양 멜론재배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 세일글

## "4만 주민들의 대변자 되겠다"

## 마재 주 장흥군의회 의장



"4만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는 대변자로서 신뢰와 믿음의 의회상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장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마재주(55·나선거구) 의원은 "의회의 근본적임무는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리증진에 우선"이라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 의장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

이 군립의 자세에서 벗어나 솔선수범으로 공직사회에도 정복을 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3선 의원인 마 의장은 강진 병영상고와 전남 도립대를 졸업했으며 장흥군 수산업 경영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장성 평립담 하천정비

## K-water 전남본부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는 장성군 삼계면 일원 평립담 직하류 하천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해 2013년 준공할 예정이다.

평립담 직하류 하천정비 사업은 평립담 하류 하천정비를 통해 홍수시 농경지 침수방지 및 댐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된다.

신송운 전남지역 본부장은 "댐 하류 홍수피해 경감과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하천사업인 만큼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전북

## 부안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8월 10~13일 격포항 ... 요트·비치발리볼 등

다음달 부안에서 열리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확정됐다.

부안군은 "국토해양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에서 '저어! 바다의 꿈, 부안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및 엠블럼과 마스코트(사진)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제전 엠블럼은 부안의 청정 해양을 상징하는 블루색상에 스포츠를 상징하는 S라인 곡선과 해양스포츠의 꽃인 요트를 모티브로 했다. 또한 마스코트는 '달이'와 '총총이'로 부안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과 우리나라 대표 여름새인 물총새를 콤비로 마스코트화 했다.

이현주 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은 "이번에 확정된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해양제전 경기장 주변에 포토존과 아치제작에 활



용하게 되며, 대회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동안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요트·핀수영·카누·비치발리볼·트라이애슬론 등 정식종목 5개와 바다수영·드래곤보트·고부보트 등 번외종목 3개, 체험행사, 부대행사, 문화공연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라감영 복원사업 '탄력'

## 부분복원 가다 ... 현상공모 작품 선정

2014년 착공 ... 450억 예산 확보 관건

전라감영의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주시 중앙동 옛 전북도청사 자리가 터인 전라감영은 전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군사 및 행정의 중심 관서이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전라감영 복원의 밑그림이 될 현상공모 최우수작으로 ㈜삼풍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출품작을 선정했다. (조감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삼풍엔지니어링 작품은 복원 대상인 선화당(전라감사 집무실)과 내아, 관공루, 내삼문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그려냈고 문화시설과 휴식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 활용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현상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 작품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4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45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전라감영 복원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분복원'으로 가다 잡고 현상공모를 실시, 1단계 아이디어 현상공모자 10개팀 가운데 4개 팀을 대상으로 2단계 지명 현상공모를 진행해왔다.

시는 전라감영 전체를 복원하려 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선화당 등 일부만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생태관광 남원' 5대 실천 시민운동

불법 쓰레기·바가지 요금 등 없는 도시 만들기 나서

남원시가 살기 좋은 녹색생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5대 실천 시민운동을 벌인 다.

남원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5대 실천 시민운동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광고물, 불법 주차, 불법 적치물, 불친절·바가지 요금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결의대회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

을 해 범시민 운동에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사실 주관으로 합동 데스크 포스터를 구성해 불법 주차차 단속 및 계도활동 추진과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청소, 적치물, 주차질서, 광고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5대 실천운동을 생활화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뱀사골 계곡, 지리산둘레길, 소리여행을 위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한주 시장은 "기초질서 준수는 시민생활의 편리뿐만 아니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UNEP)이 선정한 '제15회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은상을 받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인정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사이버 연수

## 전북도교육청

## 초·중 교사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따돌림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사이버(원격) 연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북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초등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원격 연수(15시간)를 실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지도이해와 학교폭력예방·처리절차 이해를 주제로 15시간 규모의 원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원격) 연수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였다"며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인식과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연극·춤 공연

정읍에총과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춤사위가 함께하는 상설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21일 뮤지컬 페스티벌(빅밴드)을 시작으로 ▲7월 28일 7080 기타·발리댄스(PP하모

니, 발리댄스코리아) ▲8월 4일 창작창극 '황금알과 남해옹양' ▲8월 11일 색소폰 현연·부채춤·실내악 연주 ▲8월 18일 한여름밤의 음악회(경음악·백밴드) ▲8월 25일 얼수 풍물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경찰서,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교실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지난 9일 남원 운봉농협 2층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범죄피해 유형 설명 ▲부녀자 납치 예방요령 ▲범죄피해 신고방법 ▲긴급전화번호 안내를 비롯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

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외사담당 조유영 경위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에 대해 언제든지 달려가 도와주고, 행복한 가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순창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장려상

순창군이 소방방재청 주관의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20여명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순창군은 지난해 순화 소하천을 대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교량을 신설하는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인센티브로 받게 될 국비 20여원과 군비부담금 20여 등 총 사업비 40여를 내년 예산에 확보해 동계 내안 소하천과 북쪽 순정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새마을 고창군지회,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회장 김종균)와 부녀회(회장 김석봉·정연순)는 10일 고창 르네상스 웨딩홀에서 관내 70세 이상 노인 160명을 초청해 '제18회 사랑의 어르신 초청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뉴새마을 해피코리아 운동' 일환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래환 군의회

의장, 임동규 도의원, 박현규 후원회장, 신동하 새사모 회장, 250여명의 새마을가족이 참석했다.

이명 행사는전북도 신나는 예술 버스 공연단 4팀이 참여해 작은 서커스와 마술, 우리 춤, 노인 장기자랑 등 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를 진행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